

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완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사모펀드 제도개편(21.10 시행)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완화했으나 투자자 요건은 강화

* 유한책임사원(투자자)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(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)로 제한[자본시장법 §249의11⑥ 및 동법 시행령 §271의14④, ⑤]

-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·비상장회사도 PEF에 투자자(3억원 이상 투자)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,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요건*을 갖추지 못한 상장·비상장회사는 투자자로 참여 불가능

*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: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(외감법인 50억원) 이상
비상장법인: 최근 1년 이상 계속 50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(월말 평잔 기준) 보유

-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내 M&A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*을 수행하고 있으나,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투자자 자격 제한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M&A나 전략적 투자에 참여할 수 없어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

* 대형 M&A 상위 20건 기관전용 사모펀드 참여 비중: '19년(65%) → '20년(80%) → '21년(85%)[금융감독원]

- 법인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,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자 요건*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 규제에 해당

*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(100억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限)

□ 건의안

-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(유한책임사원) 요건 완화

<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>

령 §271의14	현행	건의안
④항 3호. 나목 (전문투자자)	나.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(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) 이상일 것	나. -----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억원(--- 5억원) 이상일 것
⑤항 4호. 다목 (그 밖의 투자자)	다.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	다. ----- 10억원 이상 -----.